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3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18일 (음력 12월 2일) 목요일

##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개혁신당’ 창당 가속화

오는 28일 발기인대회 개최...6개 위원회 · 3개 특위 별도 구성

통합 추진 국민의당 분열 피할 수 없을 듯...“우린 갈 길 가겠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배숙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왼쪽부터) 대변인, 윤영일 의원, 조배숙 대표, 김경진, 유성엽 의원. 조배숙 대표는 “아침 출근길에 항상 보이던 63빌딩이 심각한 미세먼지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환경이 우리 국민의당의 앞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통합 반대파 모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오는 28일 개혁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연다. 안철수 대표 측의 통합 추진에 끝내 결별을 선언한 셈이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준비하고 조직 등 여러가지를 준비키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발표해대로 위원장은 조배숙 의원이 하고 창당기획장은 김경진 의원”이라며 “개혁신당 창준위에는 창

단기획단과 총무위, 조직위, 홍보위, 정강정책위, 당헌당기위 등 6개 위원회를 둘 것이다. 별도로 여성, 청년, 노인 등 3개 특위도 별도로 구성했다. 어떤 분들이 맡을지는 인선을 협의해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6개 위원회와 3개 특위 인선

시에는 다른 지역 고로쇠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지난해 사업비 3억5000만 원을 들여 노후화된 채취 호스 및 집수정을 교체하고 농가에 고로쇠 포장재를 지원했다.

### 광양 백운산 고로쇠, 25일부터 채취



광양시 백운산 고로쇠 채취가 25일부터 시작된다.

17일 광양시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며 전국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 16호로 등록된 백운산 고로쇠 수액을 25일부터 채취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맛이 달고 개운하며 향이 좋은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수분함량이 높은 토양과 해발 600~800m 고지대 계곡에서 채취된다. 수액 채취에 적절한 평균 일교차 10~15℃를 보이는 기후조건에서 채취가 이뤄진다.

고로쇠는 칼슘, 칼륨, 망간, 마그네슘 등 10종의 미네랄이 풍부히 함유돼 면역력 강화와 피부미용, 골다공증 예방, 완화, 노폐물 배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창준위 발기인대회 등 2가지 축으로 개혁신당 창당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창당의 법적 성격을 갖는 개혁신당 창준위 발기인대회를 통해 발기인들을 선정하고 당명공모 등 실질적인 부분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가 자체적으로 개혁신당 창당작업을 가속화하면서 통합을 추진하면서 진행된 국민의당 분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동본부 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조 의원은 “안철수의 새 정치는 죽었다”며 “이제 안 대표와는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다. 안 대표는 더 이상 저희들의 경쟁상대로 되지 못한다. 개혁신당 창당 얘기를 듣고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안 대표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안 대표와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투는 것도 시간낭비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린 갈 길 가겠다”며 “입의적 정계개편을 통해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비생산적 양당제로 되돌리려는 정치인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 지정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해계모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주홍성 기자



### 흘러간 노래

자유한국당은 1월 부산과 울산을 방문해서 부산인사 회를 열고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PK지역 세움에 나섰다.

이날 부산 신년인사회에는 비례대표에서 복당한 김무성 의원이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다. 김 의원은 부산에서 중앙당 차원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건 이번 이치음이다.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을 두고 배신자라는 원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의원은 “제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고인사했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가수 내애씨의 노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가사를 인용하며 보수 민심의 일침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흘러 아득고 괴로웠던 세월도 가고...내애씨 노래를 보면 한국당 형편과 같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류어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등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스스



지은 죄가 많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래서 세 대교체를...

##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